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의 배경, 강의 15, 종족, 블레셋과 우가리트, 군주제의 등장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종족 그룹, 블레셋과 우가리트, 군주제의 등장입니다.

바다민족운동에 관한 몇 가지 수준의 토론이 계속되는 다음 테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청중 중에 극소수만이 바다 민족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놀랄 것입니다. 글썄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의미에서 그 운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아주 아주 작은, 무한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 중 하나이며 특히 들릴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Tjekker 및 Danuna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블레셋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에게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각 부족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에게해에 속한 종족 중 가장 강력한 종족의 이름을 따왔거나, 에게해에서 가장 가까운 종족의 이름을 따왔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 모두를 묘사하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패배시켰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여러 다른 부족들을 정착시켰고,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점차 그랬듯이.

벨레셋족은 성경에 나오는 다섯 성읍인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인 펜토폴리스에 정착했습니다. 이것이 5개의 도시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블레셋 도시가 아니었고 이집트인들이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인들의 가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치함으로써 여기 이 지역은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문장만 빗나가면 여러분은 히소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소스는 이집트 사상에 끝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인들이 히소스로부터 배운 것은 이집트와 중동을 분리하는 이 사막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250마일의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소스의 결과로 그들은 이 육교를 통제하지 못하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교를 장악하려고 그들의 속국인 블레셋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로 여기에 세워 다섯 성읍에 두었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지켰습니다.

그 다섯 도시에 에게해의 강력한 전사들이 있는 한, 그들은 쉽게 침략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갈릴리 바다 남쪽 이곳에도 세웠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단 균열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암만에 그것들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이 지역의 동부 전체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게해의 이러한 전략적 정착을 통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증오받는 셈족으로부터 이집트를 보호하는 강력한 지지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그들이 했던 곳에 정착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러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10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내가 언급한 지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이 지역에서 독특합니다.

그들은 에게인이고 그들의 도자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썬, 셈족 도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전형적인 에게해 도자기입니다. 예술 작품과 그 우아함은 셈족 세계의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에게해에 존재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에게해의 도자기가 셈족 세계가 생산한 어떤 것보다 우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독특한 도자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매장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인들이 같은 종류의 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꼭 블레셋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을 유인원형 점토 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관은 인간 모양이고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무덤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아마도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와 물론 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턱이 있고 턱 아래에 두 팔이 보입니다. 몸에 불균형이지만 이것이 이 점토 관의 모양이 된 방식입니다.

그것은 미케네 왕들의 죽음의 가면을 막연하게 생각나게 합니다. 확실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케네 왕의 데스 마스크가 생각나네요. 그러므로 어쨌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중 일부의 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초기에 그 지역의 종교 신, 신, 관습을 흡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일찍 셈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토록 큰 문제로 등장합니까? 글썄요,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전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철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철을 발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과는 다릅니다.

고대인들은 철에 대해 아주 먼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특했습니다. 무거워서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간이 마침내 철을 녹이는 방법을 배운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보다 아마도 기원전 1500년 정도 더 이른 시기가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철은 일반 불의

온도로는 녹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금속 조각 아래에 불을 붙이려고 한다면, 단지 따뜻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어딘가에서 그들은 그 비밀을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벨로우즈 시스템을 통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초기 미국 역사에서 말굽 등을 다루는 대장장이, 철 대장장이들은 금속 전체에 공기 흐름을 증가시키는 아코디언 같은 구조로 철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많을수록 불꽃이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에게해 지역의 사람들은 철을 녹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녹이면 인류가 해왔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람을 죽이는 기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대였습니다. 그들은 철을 도자기나 도구처럼 실용적인 물건으로 만들기 전에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있었고 철 무기는 전쟁에서 그들에게 무적의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철 병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글썄요, 이스라엘에서 500마일 이내에는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은 모두 수입해야 했고, 확실히 가나안 사람들은 철을 제련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철은 무역이나 구매를 통해 그 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갖고 있었고, 철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해야 했던 사람들 중 가장 무서운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들이 그것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영토라고 부르는 이름을 채택함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들은 성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물론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과 함께 도망친 것에 대해 동시에 다소 슬프게 웃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루고 싶은 마지막 장소와 민족에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강의 후반부에서 여기로 향하고 있는 곳이고, 그곳이 Ugarit의 사이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지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가리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커서가 가리키는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도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인 우가리트(Ugarit)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가리트는 우연히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도시였습니다.

거의 100년 전, 한 현지인이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 끝에서 유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우가리트(Ugarit)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2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가리트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굴자는 Claude Schaeffer라는 프랑스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볼 때,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완벽한 거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보시다시피 여기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의 가장 동쪽으로 확장된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물론 키프로스는 고대인들이 대부분의 구리를 생산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우가리트는 키프로스의 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르파드(Arpad)와 알레포(Aleppo) 등 주요 무역로가 있습니다.

물론 무역을 위한 남북 교통도 차단한다. 즉, 동서 및 남북 교역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상적인 교역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 인민 운동으로 파괴될 때까지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는 무역에 이상적입니다.

이 사이트가 발견되었을 때, 그 언어와 문헌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검토할 것보다 Ugarit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garit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Ugarit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우가릿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가리트는 자신만의 언어, 문법, 어휘, 참고문헌을 갖고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학문이므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Ugarit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알파벳 언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때 우가리트가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알파벳 언어였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계속해서 알파벳의 날짜를 더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가 최초의 알파벳이 발명된 날짜가 대략 1700년이나 1800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Ugarit는 우리에게 많은 서판을 제공하는 반면, 제안된 다른 알파벳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서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셈어입니다. 그 알파벳은 설형 문자로 쓰여진 30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아카드어 문자를 보고 있다면, 설형 문자로 된 서판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수메르어, 아카드어, 우가리트어, 헛어로 기록되었을 수 있으며 차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가리트는 히브리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언어이며, 물론 그것이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언어 발견이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로 제한할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지적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공부한 모든 언어 중에서 히브리어 외에 제가 다음으로 가장 좋아했던 언어는 우가리트어였습니다. 따라서 우가리트는 서부에서 서판이 발견된 유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에블라를 제외하고 상당량의 서판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기원전 2000년에 발견된 유일한 서판입니다. 우가리트는 약 120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시 사용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귀중한 수백 개의 서판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 발견의 가장 행복한 결과는 히브리어 연구, 특히 히브리 시에 대한 중요성일 것입니다.

이 책은 구약의 구문, 히브리어 문법, 하팍스 레고메나 연구에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Hapax Legomena는 말 그대로 한 번 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를 다룰 때 가끔 단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가리트를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 언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 시절에 시편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30년대와 40년대에 쓰였던 시편 주석을 보러 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문자 그대로, 주석가들이 할 일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시적 구조에 맞게 재배열하고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러한 초기 주석 중 일부가 기록되었으며, 주석가는 히브리어가 부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 문학 구조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Balderdash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 시는 우가리트의 시적 산문 구조와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우가리트에는 시편 자체가 없지만 매우 잘 어울리는 시적 산문이 있어서 히브리 시 연구에 좋은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히브리어 본문을 바꾸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가리트의 영향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경우가 많다. 제가 어렸을 때, 위대한 가톨릭 학자인 미셸 다후드(Michel Dahood)는 앵커 성경에 세 권으로 된 시편 주석을 썼고,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의 자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음만 바꾸었지만 자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우가리트 때문에 일어났고, 특히 히브리어 시뿐 아니라 히브리어 문법과 구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상하고 희귀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 새로

개종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구약성서에 끌렸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나 구약성경을 읽으면, 특히 처음 몇 번 읽으면 많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 나무를 베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Hewing은 우리가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이 숲을 베어서 가나안 종교를 공격하는 것처럼 숲을 베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어떻게 나무가 죄가 될 수 있고 왜 나무를 자르는지 궁금해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것이 전혀 숲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아세라라는 여성 신의 나무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킹제임스 번역자들인 우가리트(Ugarit)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단지 추측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잘라내라는 뜻의 말이었다. 글썄, 만약 당신이 물건을 베고 있다면 그것은 나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Ugarit과 같은 사이트 덕분에 이제 우리는 그들이 나무 제의 이미지를 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가리트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히브리어 본문의 목적을 위해, 사해 두루마리를 제외하고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가리트가 가장 중요한 서판 발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가나안 종교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상 모든 것이 우가리트로부터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으면 가나안 종교가 끔찍한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알려주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한 몇 가지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희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신학에 대해 실제로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가리트어에 이르면서 우리는 반대로 가나안 종교사상을 특징짓는 신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로 계절과 다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나안 신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은 우가리트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성경학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훈련에 우가리트어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개발할 여지를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태블릿이 매우 강력하고 중요하여 우리가 이 용어를 만든 것 같지 않은 일부 기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오류의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글을 남길 것입니다. 범우가리트주의(pan-Ugariticism) 시대.

즉, 우리가 한 일은 우가리트어의 특수 안경을 끼고 구약 전체를 우가리트어에 비추어 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과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절반이 조금 넘었고 아직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Ugarit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당신에게 말하고 그 사이트를 떠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가리트에 관한 가장 우연한 일 중 하나는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리가 끝나지도 않은 채 오븐에서 정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괴되고 다시 거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Ugarit의 모든 것은 그 자리, 즉 원래의 환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종류의 발견입니다. 건물 위에 건물을 짓고 지으면 증거가 파괴되는 반면, 부지가 방금 파괴되면 일부는 잃지만 후속 건물에 의해 짓눌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의 나머지

부분인 이 테이프에서 할 일은 이스라엘의 군주제의 부상이라는 중요한 주제 영역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이스라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역사는 매우 많고, 그중 가장 좋은 것 중 일부는 Leon Wood의 이스라엘 역사 조사, John Bright의 이스라엘 역사, Eugene Merrill의 Kingdom of Priests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최신의 새로운 역사가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세 사람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있다면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사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이 우리에게 오랜 기간의 사사, 사사로부터 밝혀낸 것은 대략적으로 대략 35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단지 둥근 모양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을 때 그것은 우울한 책이다.

나는 우연히 이 책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이 책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오늘은 우리의 48주년 기념일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판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아, 안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이 어떻게 일몰 속으로 떠나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우울한 책이에요. 사실, 책에는 행복하거나 중립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고안된 책입니다.

이 시대의 고고학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공통의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판사에게서 보는 것은 그들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뭉친 적이 단 한 번 있는데, 그것은 서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이야기 중 하나에서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 사실상 멸절시키는 큰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전체에서 부족들이 협력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도 아니었고,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들의 집합체였고, 분명히 엄청난 양의 종교적 배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은 이 시기가 변영의 시기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골의 상황은 소박하고 대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에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솔직히 말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바다민족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다 민족 운동은 대략 사사기 중간에 발생합니다. 바다 민족 운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부족들이 해안을 따라 내려오면서 많은 도시가 함락되고 일부는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혼란, 즉 정치적 질서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정치적 혼란의 일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시로-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들의 혼란은 아마도 해양민족운동의 혼란과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합 군주제의 다음 기간과의 연속성의 마지막 지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실제로 이 책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용되는 불행한 용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상한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책들에 대해 여러분이 성경에 갖고 있는 많은 이름은 히브리어 전통에 있는 이 책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즉, 사사기라는 이름은 사사기서가 아니라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에서 따온 것입니다.

70인역의 저자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의 이름을 '사사기'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책의 처음 몇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세계의 공통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제목은 실제로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책의 실제 제목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습니다.”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독자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르도록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취하셔서 여호수아에게 그 영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정확한 확장인지를 말하려고 애쓰는 반면, 여호수아를 읽을 때 1장에서 여호수아는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모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슈아가 죽자 놀랍게도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려고 애쓰셨다면, 왜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글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에 관한 기록과 여호수아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 중 어느 하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께 중재해 달라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서 끝 부분으로 갈수록 제 기억이 오늘 작동한다면 그것은 13장인 것 같습니다. 1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언제까지 거기 머물 예정이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자.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끝날 무렵에는 일부 땅은 정복되었지만 많은 땅은 정복되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성경의 역사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준비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신 것은 그들이 백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만 빼고 모두 광야에 매장될 정도로 모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 모든 경우에 어떤 지파도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글썄, 그 모든 것에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제가 쓴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간과의 연속성 중 하나는 사사라는 용어가 그다지 좋은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는 사사 중 한 명도 사사로 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사라고 불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이 책을 사사라고 부르는가? 뭐, 절반은 동사형을 판단했다고 하니까. 판사 중 누구도 타이틀 판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판단된 동사 형태조차 모든 지도자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사 형태조차도 모든 지도자에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사라는 일관된 직분이 실제로 없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점입니다. 부족이 아닌 다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장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사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각 지파의 개별적인 활동이다. 때로는 부족들이 우리가 판사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협력하고

따르기로 동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판사직이 있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통치받는 방식이 판사라는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장로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부족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응집력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협력하고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12명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12지파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숫자일 것입니다. 대판사는 6명, 소판사는 6명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소위 판사라고 불리는 판사들에 대한 분석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판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각 판사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이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각 판사는 리더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공통점 전부였습니다.

사무실이라면 예상할 수 있듯이 한 판사에서 다음 판사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직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쪼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공직이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정치인들 각자가 지도할 때 한 일은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시기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넷째, 신화적인 직위가 아닌 지도자의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튀겨야 할 다른 생선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 연구에서 실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판사들 사이에 발생하는 대조입니다. 판사는 신권정치와 왕권, 즉 군주정치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사기에는 신정 시대가 있지만 군주제는 아닌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권 정치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모델을 거부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가 군주제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권정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십니다. 저지스가 하는 일은 부분적으로는 일부분일 뿐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사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므로 모든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지도자를 따르기를 꺼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내 생각엔 사사기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혼란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 주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이는 비극, 신학적 배도, 국가 해체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몇몇 저자들과는 달리 사사기는 이상적인 시기가 아니라 큰 비극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사기라고 부르는 약 300년 이상의 기간이 독특한 신권정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방식과, 그는 다윗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며, 히스기야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영원한 왕이시며, 나는 사사기가 신권정치라는 개념을 독특한 것처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를 위한 무대를 빠르게 설정하겠습니다.
 신정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닌 말입니다.

내가 그것이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 개념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성경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권정치(Theocracy)는 헬라어에서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 단어는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오스(theos)와 통치자를 뜻하는 아르코스(archos) 또는 아르콘토스(archontos)에서 유래했다.

그러므로 신권정치란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글쎄, 그게 내
 요점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십니다.

신권정치가 아닌 시대는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신권정치이다.

이제 미국은 신권국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신권정치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글쎄요, 내 노트의 페이지 중간에 요세푸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세푸스,
 앞서 테이프에서 요세푸스가 로마에 대항한 반란에 가담한 장군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론 그는 패배했고, 오직 그 자신의 손재주에 의해서만 요세푸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시력 있는 선지자라고 로마인들에게
 확신시켰기 때문에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항상 미래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항상 미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옆에 있을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목숨을 구한 후 요세푸스는 다소 방향을 바꾸었고 로마를 크게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 과 『유대 역사』 라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그는 유대인의 역사를 쓰면서, 사사에 관한 역사 부분을 쓰게 되었을 때, 지금이 이상적인 시기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고안했습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요세푸스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지도자에게 비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 특히 헤로데 왕들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왕권이 없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사사기를 놀랍게도, 어쩐지 이상적인 시기로 보게 되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권정치였으며, 그에게 그것이 그가 제시한 모델이었습니다. 글쎄요, 판사가 신권정치이고 군주제 기간이 어떻게든 나쁜 생각이었던 그 모델은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가 평온함의 시기도 이상적인 시기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모델에 예외를 두고 싶습니다. 군주제와 대조된다는 점에서 신권정치 시대는 아닙니다. 사사기는 1차 혼란의 시대이다.

나는 간단한 단어 공부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배하는 단어인 사사기에서 토라(Torah)라는 단어가 율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토라(Torah)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여호수아에는 예언적 활동이 있지만 사사기 전체에서 선지자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여선지자가 있지만 사사기에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 돌아가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헌법의 치리자들 중 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 전체에서 언급되는 제사장은 17장부터 18장까지의 제사장 한 명뿐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의 마지막 3분의 1에는 성막의 건축과 성막의 직분자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너무나 거룩해서 성막 완성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성막에 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사기에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는 세 가지 성일 행사,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오거나 어떤 중앙 장소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 순례 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보면 절기나 성일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를 읽을 때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의 거처인 법궤에 대해 반복해서 읽습니다. 사사기에 이르면 방주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신학적 중심 단어를 살펴보면, 은혜에 대한 단어인 헤세드(hesed)와 암탉(hen)은 모두 주로 은혜 또는 은혜라는 단어의 어떤 형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 또는 암탉이라는 단어는 책 전체의 1장과 8장에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사사기 전체 기간이 끔찍한 배교, 비표준적인 종교적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상적인 신정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것은 신권정치도 아니고 확실히 군주정치도 아니지만 무정부 상태의 시대입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이것은 알파 프라이빗입니다. 비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혼돈과 배도가 있고 모든 것이 올바른 범주를 벗어났다고 말하는 기간입니다. 한 학자가 WUD, WUD, World Upside Down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판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내 경험과 평가에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왕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의 왕실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하여 이어지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핵심은 줄임표입니다. 그것은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방식 사이에 있는 역사의 기간입니다. 대재앙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물론 적들이 주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집트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그들의 적들은 모두 지역적입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은 모두 이스라엘이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패할 수 있는 작은 왕국들입니다.

좋아요, 내 판단으로는 당신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싶은지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공부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뜻을 향해 모든 것을 옮기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성한 뜻을 향해 일을 옮기시는 기간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이 책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불순종하고, 남용되는 기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이 완전한 불순종의 시대라면 이 책의 신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내 대답은 이 책이 하는 일은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배도 때문에 모든 경우에 그들을 처벌하시는 반면,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인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에 은혜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데, 이야기 하나하나가 은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섯 가지 주요 이야기 모두를 이루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도를 범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압제자를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책의 각 주기에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압제자를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적으로 관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기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글쎄요, 여기 그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사용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윗과 같은 경건한 왕들에게 소개하시고 아마도 솔로몬과 같은 경건한 왕들에게 소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다가올 위대한 사건, 즉 군주제의 형성에 대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프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군주제의 형성과 이 모든 것이 배경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돌아올거야;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군주제의 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종족 그룹, 블레셋과 우가릿, 군주제의 등장입니다.